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지난 주 (8/23/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33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8월 30일 (671호)

말씀묵상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6:1-5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9/6/26	9/13/26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열매2

지난 주에 이어서 열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인간 내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자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함께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본성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모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교회도 뒤로 하고, 주님도 뒤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십자가지 자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을 제외한 주변에 있던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만류합니다. 이유는 그들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헛갈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고? 가지 말라는 지시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받은 인간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에 순종하고 누군가는 그러니 가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바울 안에 역사하신 성령에 이끌려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